

사슴별곡



김준형의 청명곡니

인도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다. 인도의 어느 숲에는 황금 사슴과 그가 거느린 오백여 마리의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왕이 사슴 고기를 너무 좋아 해서, 날마다 사슴을 사냥했다. 사슴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황금 사슴은 왕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냥을 그만 두면,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매일 한 마리씩 목숨을 내 놓겠소.'라고 제안했다. 왕은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를 밴 어미 사슴에게 순서가 돌아왔다. 황금 사슴은 자신이 어미 사슴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 놓겠다고 나섰다. 이 모습을 본 왕은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사슴들에게 '더 이상 사슴고기를 먹지 않고,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하이난 섬에도 사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어느 날, 젊은 사냥꾼이 멧진 사슴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사냥꾼의 끈질긴 추적이 이어진 끝에, 사슴은 남쪽 끝의 절벽에 다다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사슴은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

다. 그런데 사슴의 눈망울이 너무나도 맑고 애처로웠다. 차마 쏠 수 없었던 사냥꾼이 활을 내려놓자, 사슴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사실 사슴은 무척 친근한 동물이다. 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이라는 명칭도 '선선이 흰 사슴을 타고 내려와서, 사슴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이라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나라공원에는 1000마리가 넘는 꽃사슴들이 살고 있다. '타케미카즈치'라는 군신(軍神)이 사슴을 타고 나타났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사슴을 보호해 왔다고 한다. 도교의 십장생의 하나가 사슴이고,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사슴의 수호자였다. 사슴을 자신의 시조로 생각하는 민족도 있다. 게르만족과 켈트족은 수사슴을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했고, 몽골족도 자신들이 푸른 이리와 흰 사슴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스키타이족도 사슴과 깊은 인연이 있다. 사실 스키타이라는 말의 어원도 '사슴'이다. 스키타이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사슴뿔 모양의 관을 썼다. 이런 풍습은 신라의 금관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신화와

전설에서 사슴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마도 뿔 때문일 것이다. 사슴의 뿔은 정기적으로 재생된다. 그래서 사슴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최근 수원에서 주민 2명이 사슴에게 공격당했다. 부랴부랴 수원시가 나서서, 간신히 사슴을 포획했는데, 이번에는 의왕, 군산, 순천에서 사슴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사슴뿔에 쥘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다.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이때 수사슴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슴들은 사슴농장에서 탈출한 사슴들이 번식을 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사슴이 절대 만만한 동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슴농장을 관리하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슴이 인간세계를 침범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사슴이 살 곳을 빼앗아 버린 것인지가 아리송하기만 하다.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자연을 지배해 왔다. 어쩌면 이번 사슴사건들은 인간에게 보내는 대자연의 경고는 아닐까?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한때의 주춤이 영원한 멈춤은 아니다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차전지는 모든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다. 전기차와의 시너지 효과로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이라 평가받았으며 업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뭇 다르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때 배터리사들은 대거 투자를 늘렸으나 현재 캐즘(수요 정체)의 충격 여파를 크게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전기차 화재 사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이차전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항만 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이나 산업도 모두 위기의 순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곧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됐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가 겉보기엔 정체 상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다. 우리는 이차전지가 단순히 '잘 나가던 산업에서 위기를 맞았다'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차전지는 단지 전기차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그 이상을 넘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 속에서 여전히 글로벌 선두를 지키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이 경쟁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재의 위기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차전지의 가치까지 폄하될 수는 없다.

산업은 늘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닦아가며 내일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게 된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기업의 성과나 몇몇 문제에 주목하며 업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차전지가 환경과 사회를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당장은 길 위에서 흔들릴지라도, 끝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설계도를 선물할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48년생** 여행은 고생. **6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72년생** 오늘은 한 가지 일에만 신경을 쓰자. **84년생** 손님도 많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따르니 행복한 날.
- 37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 **49년생**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서 도전. **61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니 도둑 수가 따른다. **73년생** 비상금이 있어서 행복. **85년생** 늦게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같듯이 시작.
- 38년생** 함께하는 동업자에게 먼저 양보를. **50년생** 급여가 적어도 불평보다는 미래를 발전시켜라. **62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74년생** 준비해둔 이사계획은 순조롭게 된다. **86년생** 투자의 만큼 이익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 39년생** 취미생활로 인해 가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51년생** 인생은 양보하며 사는 것. **6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5년생** 오랜 봉사자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니 감사. **87년생** 공민인 만큼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게 되니.
- 40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52년생** 개성의 시대라지만 일할 자세를 갖추어라. **64년생** 오후에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6년생** 명예를 높이려다 실속도 놓치게 되니 아차 싶다. **88년생** 이직은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
- 41년생** 능력은 부족해도 신용으로 극복하도록. **53년생** 바람이 불어도 신념은 흔들리지 않도록. **65년생** 산소 이장문제로 가족들과의 불화를 조심. **77년생** 능력이 넘쳐도 속전속결보다는 재검토가 필요. **89년생** 금전대차 관계에서 현명하게.
- 42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54년생**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하는 것은 평소 쌓아놓은 대단한 능력. **6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신용. **78년생** 답답하면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라. **90년생** 선택한 일에 대해 신념을 갖자.
- 43년생** 남보다 일이 많아도 자신의 운명. **55년생** 능력이 부족하면 성실성이라도 보여라. **67년생** 계층을 떨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79년생** 집안에서 곱돌기만 하지 말고 화합해보자. **9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의 진척이 많아진다.
- 44년생** 이제 도박성 투자가 웬 말인가. **56년생** 주경야독은 언제든 좋은 결과가 있다. **68년생** 부나 권력으로 표준으로 삼는 시대이니. **80년생** 약육강식(弱肉強食)은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92년생** 싸우지만 말고 문제해결을 찾아라.
- 45년생** 일본도 마음이 앞서지만 분석을. **57년생** 운전할 때 배산은 금물. **69년생** 지는 일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라. **81년생** 식구에 관한 관심은 재물증식과 자녀발전에 도움이 된다. **93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지 절이 떠날 수는 없다.
- 46년생** 환경이 좋게 변화. **58년생**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70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아쉽게도 사상누각. **82년생**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면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94년생**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것이다.
- 47년생** 사돈계 보증을 부탁하지 말 것. **59년생** 바쁜 하루에도 일의 성과로 보람을 얻는다. **71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도 너무 믿지도 마라. **83년생**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95년생** 급여가 적어져도 이직의 운은 없으니.



김상회의四季 스트레스 대처법 ②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불행한 감정의 시발점인 것은 많은 현인이나 지각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다. 두세 개 정도의 같은 성씨로 구락을 이루어 살던 근근대적 시대에는 일평생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촌에 팔촌이 대부분인 지라 집마다 손가락 숫자도 꿰고 있던 시대이니 서로 사는 게 뻘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보여주기 일상이다. 여행지의 풍경과 명품 가방 팬시한 옷차림과 레스토랑의 음식들 사진 등 각자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경쟁하듯 올려놓는다. 내가 오늘 점심 뭘 먹었는 지까지도 생판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과도 '좋아요'를 누르는 시대가 반드시 행복을 담보할까. 내가 얼마나 팬시하고 럭셔리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면 망상 중에도 이런 망상이 없어 보인다.

자기 PR도 중요한 시대기는 하나 헛헛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같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에너지 있는 일상을 살아가려는데 웬 부정적인 생각이냐고? 그렇게 못 누리는 사람들의 뉘뜨리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다. 비례하여 스트레스 지수 역시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명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의 사주가 있다. 우선 신약 사주가 그러하다. 태어난 날과 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데, 나를 돕거나 생해 주는 오행이 빠져 있을 때 신약사주라고 판명한다. 신강사주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골골 체질이라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감기도 자주 걸리는 편이고 피로감도 높다. 같은 일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러니 자신의 특성을 살펴서 평상시 몸 관리에도 참고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6	
		4	3	2	
9					
1			8	9	
	9	2		8	4
		7	3		2
					4
			9	1	7
8	1	2			6

5	3		2		
7		5		6	1
	1				4
2	9				
	3	7	4		2
				4	8
9					4
	7	5		6	
		4		8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6	9	8	7	2	9	1	2	8
9	8	2	1	6	8	7	9	
7	1	2	8	9	8	6	2	9
2	9	9	1	6	8	2	8	7
1	7	8	9	2	9	2	6	8
8	2	6	8	7	2	9	9	1
2	7	7	9	1	8	8	6	6
8	6	9	2	8	7	9	1	2
9	8	1	6	8	2	7	9	2

9	2	8	6	9	7	1	2	8
6	8	1	9	8	2	9	2	7
9	7	2	1	2	8	9	8	6
8	6	7	8	2	9	2	9	1
1	2	9	7	6	2	8	8	9
8	9	2	9	1	8	6	7	2
7	9	8	2	9	6	2	1	8
2	1	9	8	8	9	7	6	2
2	8	6	2	7	1	8	9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